

조선시대 읍성

◆ 음성이란 음이라는 행정단위의 경계부에 성을 쌓은 것.

1. 개관

규모 : 60,000 m² ~ 150,000 m²

직경 : 300 ~ 5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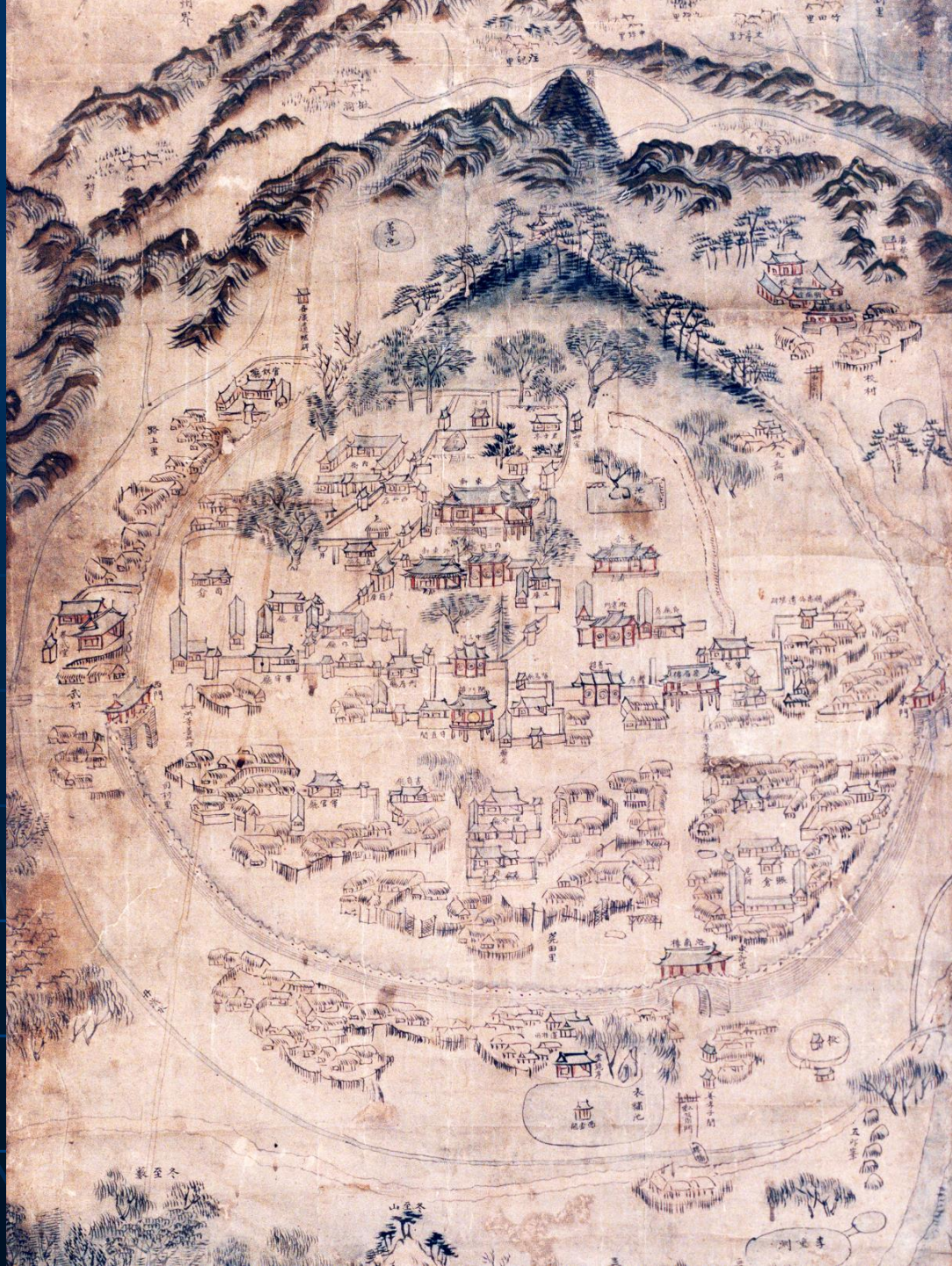
인구 : 300 ~ 500호에 800 ~ 1500명

2. 음성의 입지 및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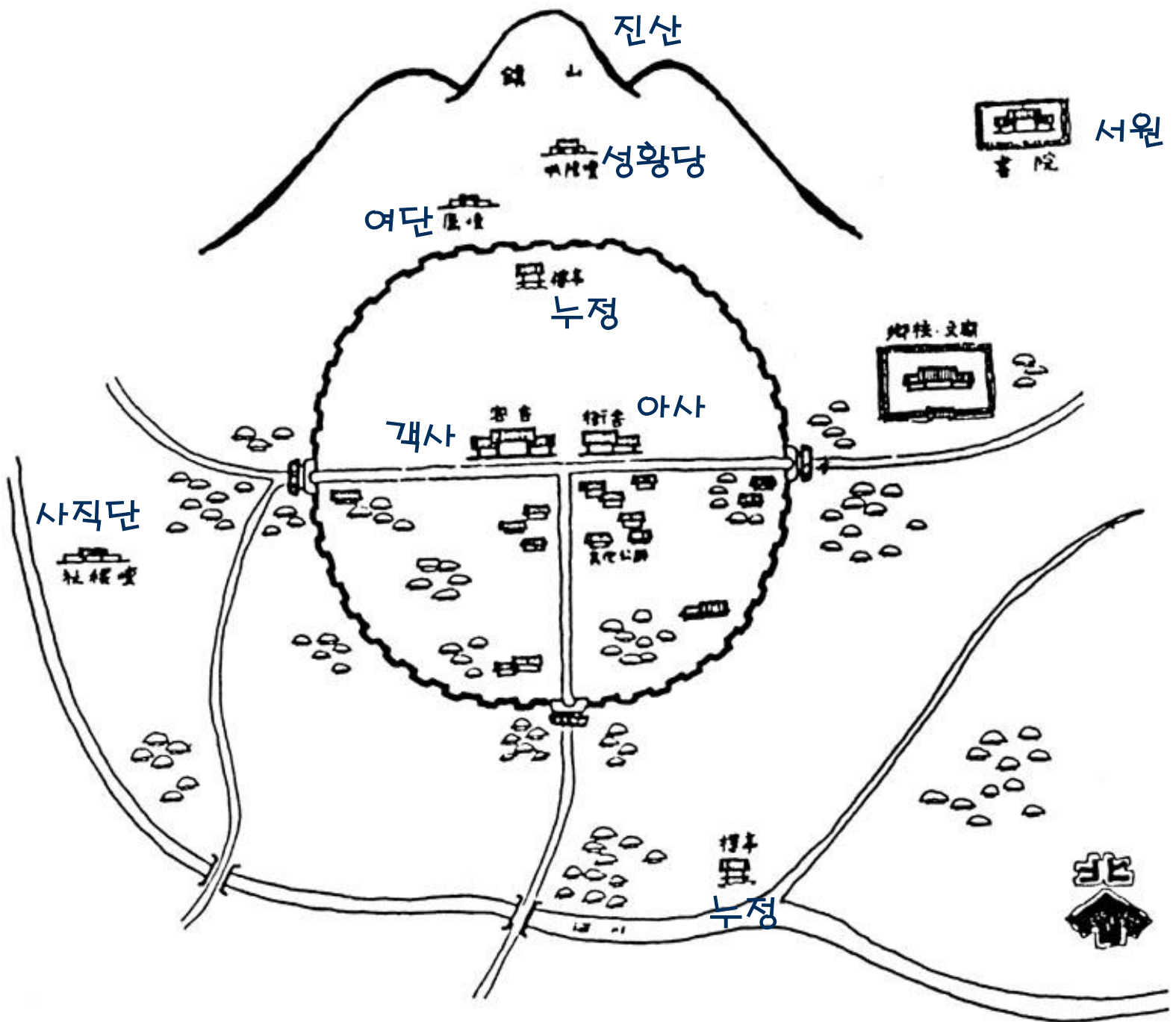
산성 / 평지성 / 평산성 테외식 / 포곡식

3. 음성의 공간구성

관아지구 : 동헌, 객사, 향청, 옥사, 훈련청, 양교,
성황당, 사직단, 여단(厲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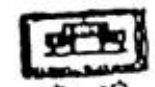
仙山 陰性圖



진산

鎭山

성황당



서원

書院

여단



樓亭

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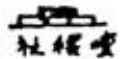
御柱·文庫

아사

客舍

객사

사직단



社稷壇

樓亭

누정



北

■ 음성의 특징 (1)

- 1) 음성의 입지는 배후에 산이 있고 앞 또는 옆으로 아천이 흐르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북쪽의 산은 대부분의 경우 고을의 진산(鎭山)이었으며, 음성의 내부 북쪽에 산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 2) 음성의 형태는 원형이 일반적이었고 그 외 방형도 존재.
- 3) 조선시대 각 읍에는 각종 제사를 위한 시설.
사직단과 문묘 - 국가적인 것
여단과 성황단 - 민간신앙.
- 4) 조선시대의 교육시설 : 향교(공림)와 서원(사림).
향교의 위치는 대부분 邑城의 가까운 곳에 방위가 적용되지 않는 않았다. 서원은 음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으며 향교가 한 고을에 한 개 있었던 반면에 서원은 여러 곳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 음성의 특징 (2)

- 5) 음성 内外의 경치가 수려한 곳에 루정을 설치하였다.
- 6) 음성 내에서는 객사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그리고 객사와 향청이 중요한 건물이었는데 객사와 아사(衙舍)가 보통 음성의 중앙에 위치하였다. 그리고 기타 공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용 건물들이 아사 앞에 군을 이루고 있었다. 음성내에서 가장 중요한 건물인 이들 객사, 아사, 향청은 각기 중앙 정부의 왕, 고을의 수령 그리고 고을 주민을 상징하는 건물로 음성내 공간구조의 3역을 형성했었다.
- 7) 음성내에는 원칙적으로 관인과 향사 및 소수의 일반 주민들만이 거주하였다. 규모가 큰 음성에서는 성내에도 일반 주민이 다수 거주하였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성 밖에 각기 유사한 직능끼리 집단 거주하였다.
- 8) 음성의 공간구조를 살펴보면 외부적인 질서체계는 풍수지리에 영향을 받음.

4. 음성의 경관구조

1) 음성의 시각구조적 경관

- ① 영역으로서의 경관
- ② 축으로서의 경관
- ③ 경관의 단계적 변화

2) 음성의 인지적 경관

■ 풍수지리와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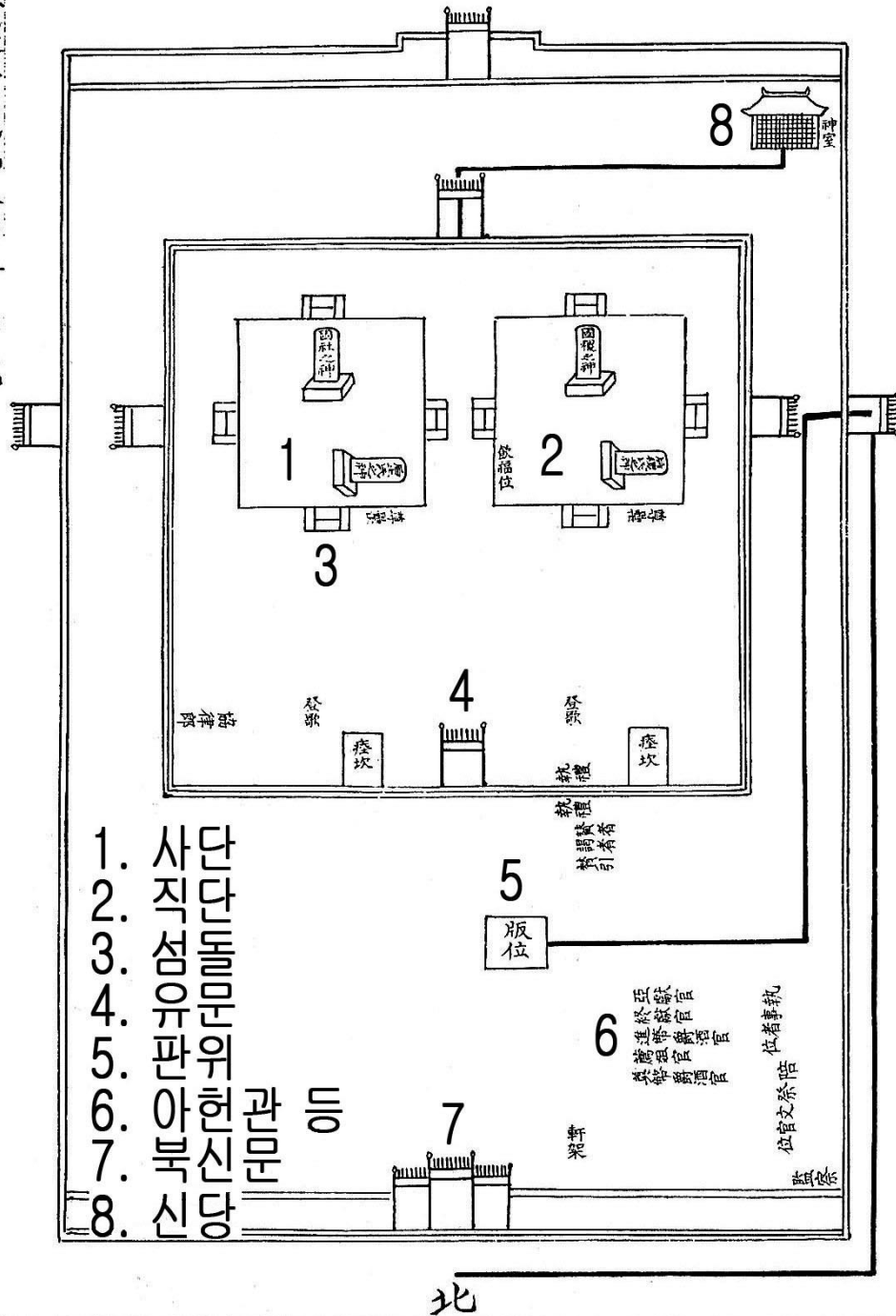
1) 낙안음성 : 옥녀산발형,
비보(裨補)-애사,석구(石拘) 안 쌍

2) 고창음성 : 와오음수형(臥虎陰水型)

3) 정의음성 : 배 영국 혹은 장군대좌형

4) 예미음성 : 행주형(行舟型)

壇壝圖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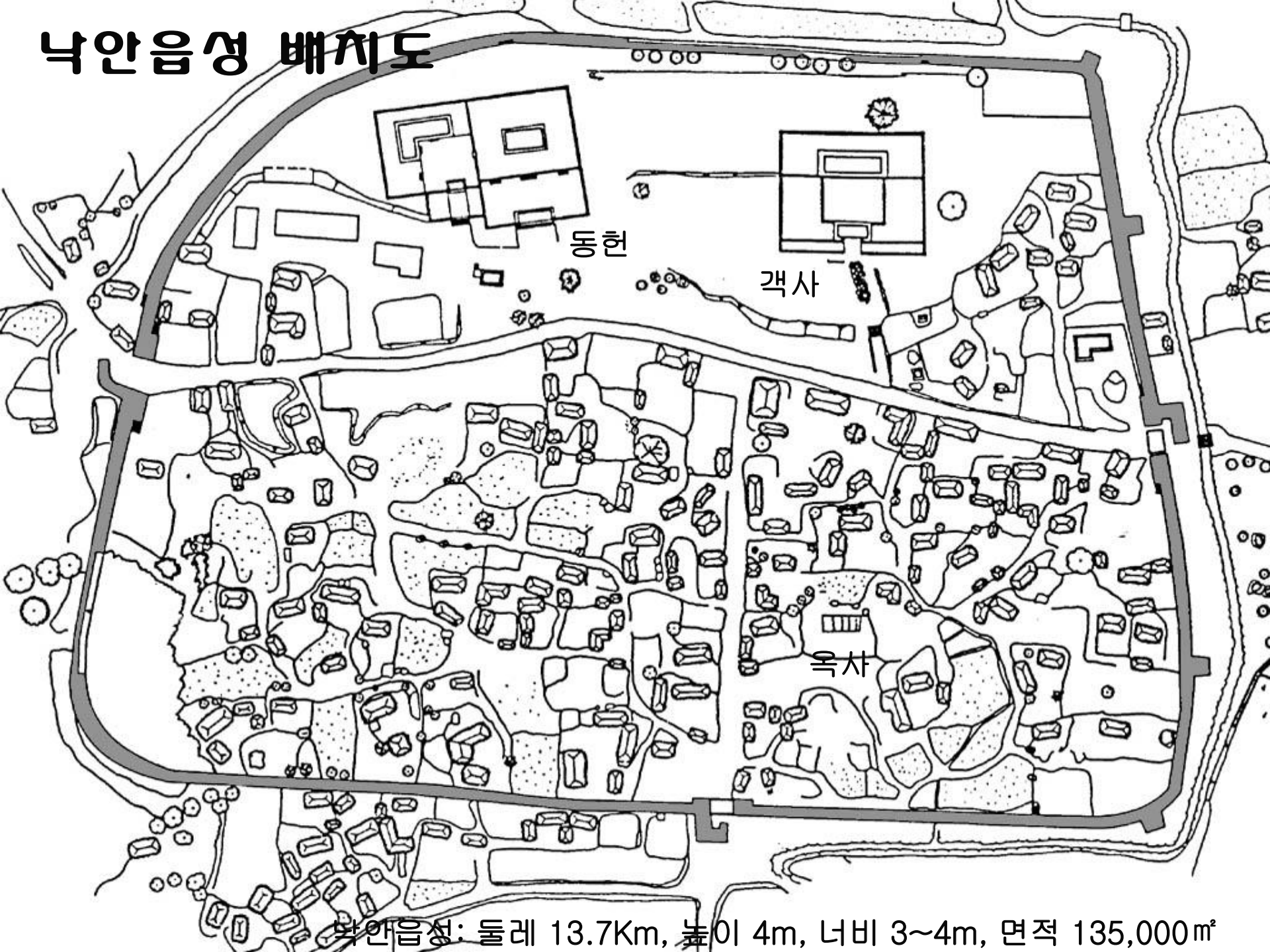


사직단의 구조

1. 낙안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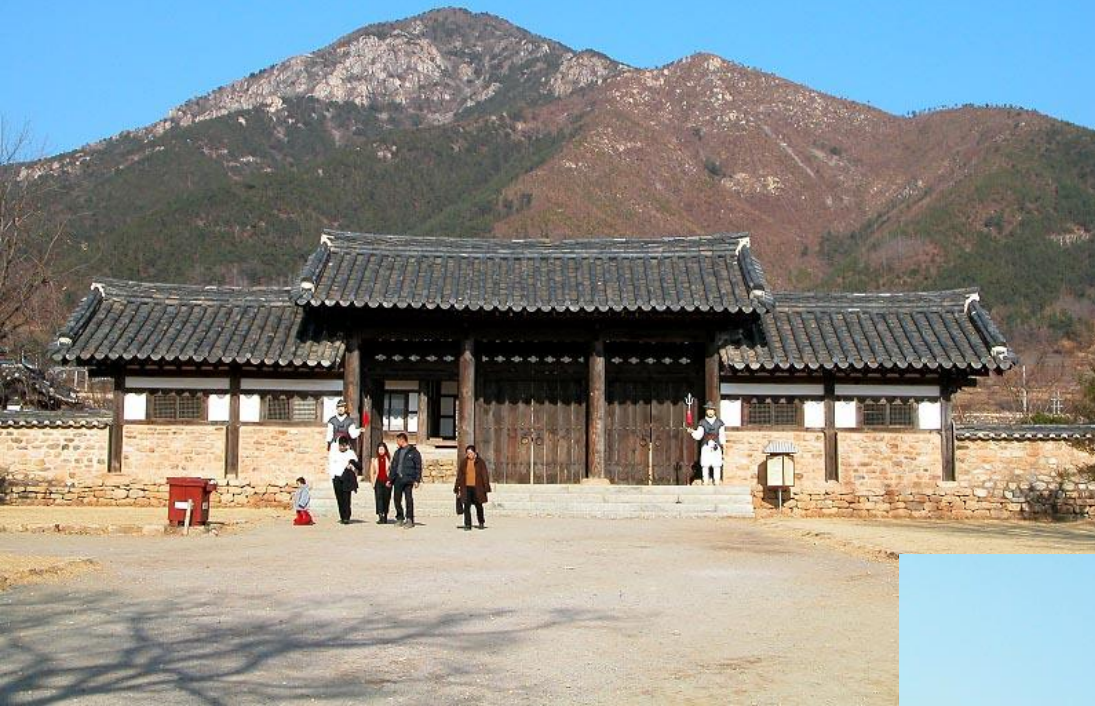
낙안읍성 배치도



낙안읍성: 둘레 13.7Km, 높이 4m, 너비 3~4m, 면적 135,000㎡

옥녀산발형 :

주산인 금전산 옥녀봉



남쪽 장군봉



TLAD

동헌 - 주산인 금전산 옥녀봉의 지세를 거스리지 않고 있다.



▶ 낙안읍성 석구(石狗) :
동쪽 멀악산을 누르기 위해



성박 해자



동~서문을 잇는 T자형의 길



읍성 남동쪽에 있는 초가, 멀리 낙민루가 보인다





우 물



성내 골목길

낙안읍성 주말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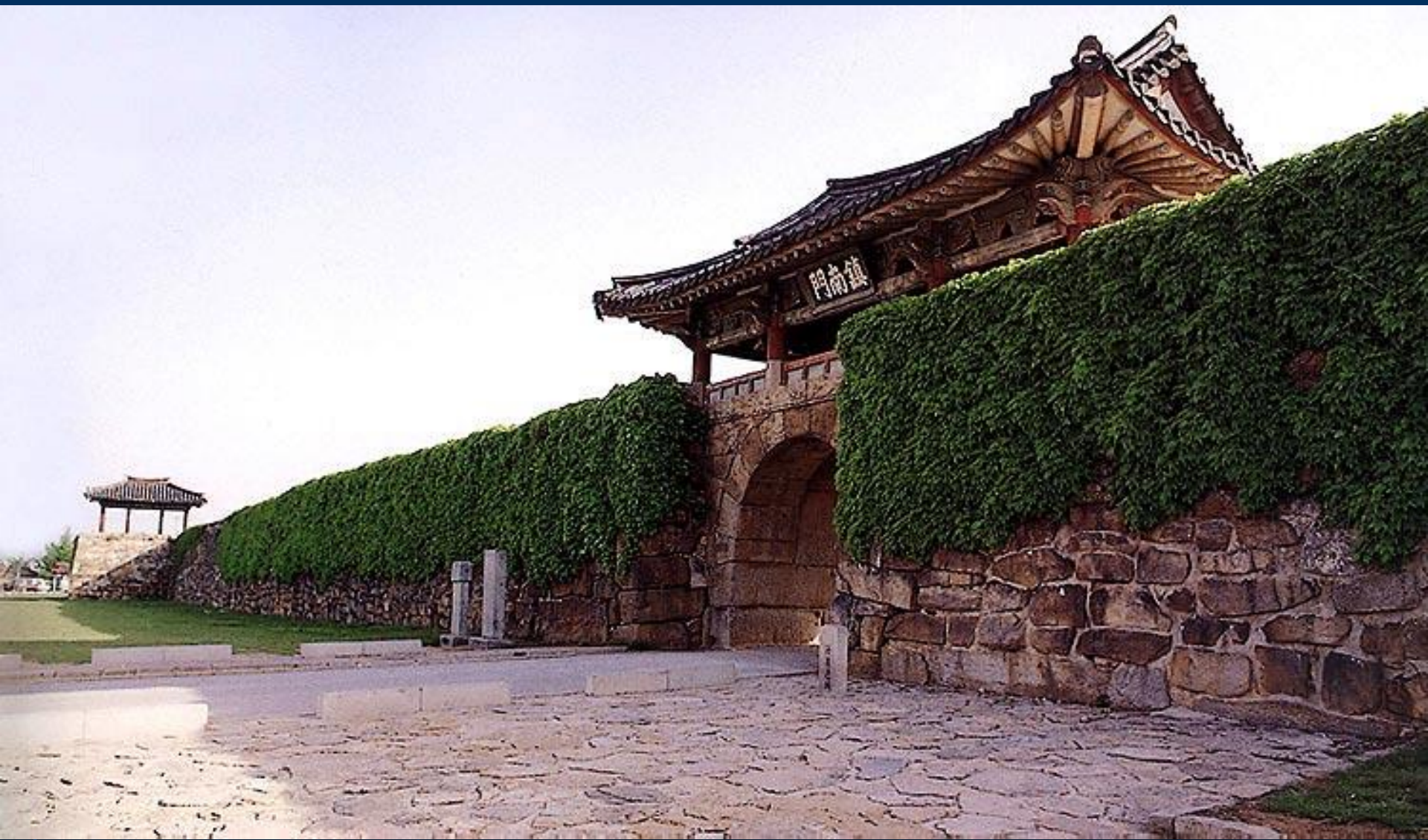
▶기간: 2002. 9. 7 - 10월 11일 (토·일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낙안읍성민속마을 놀이마당 ▶출연: 순천원국협회, 순천국악단, 풍물놀이 '일부', 풍타



충남 서산시 해미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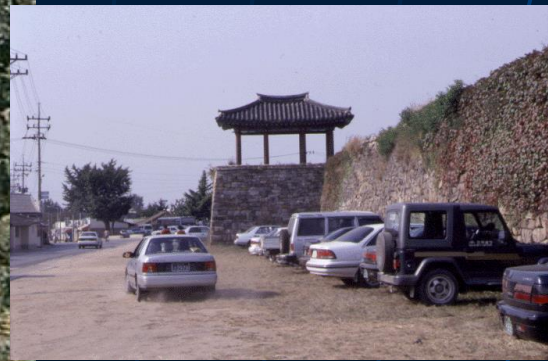
해미읍성

- 성의 둘레에 탕자나무를 돌려 심었기 때문에 탕자성이라고도 했다.
- 읍성은 지방 행정 관청이 있는 마을에 들어서며, 행정적인 기능과 군사적인 기능을 함께 갖는 형태로서, 평시에는 행정 중심지가 되고 비상시에는 방어기지.
- 해미는 태종 14년(1414)부터 효종 2년(1651)까지 군사의 중심지였는데, 이 성은 세종 때 왜구를 막기 위해 쌓기 시작하여, 성종 22년(1491)에 완성.
- 동문 · 서문 · 남문의 3문 가운데 남문인 진남루만 원래의 모습이고, 동문과 서문은 1974년에 다시 만들어진 것이다.
- 성 안의 시설은 1980 · 81년에 일부가 발굴 · 조사되었다.(자료: 문화재청)



음성 진남문

1866년 병인박해 때 천주교 신자들 1,000여 명을 처형시켰던 곳으로, 김대건 신부도 이곳에서 순교, 천주교 박해와 관련된 유적으로는 천주교인을 처형한 회화나무와 사형대 등이 남아 있는데, 이 회화나무에 신자들의 머리채를 묶어 매달아서 고문을 하였으며, 그 흔적도 남아 있다.



포 대



성벽 석축 : 막돌허튼층쌓기

고창읍성(포곡형산성)

모양성(牟陽城)이라고도 하는데, 백제 때 이 지역을 모량부리로 불렀던 것에서 비롯되었다. 오남을 방어하는 요충지로, 단종 원년(1453)에 세워진 것이라고도 하고 숙종 때 완성되었다고도 하나 확실하지 않다.

성벽은 비교적 잘 남아 있는데 최근 보수공사를 하여 원형에 가깝도록 복구하였다. 성 둘레는 1,684m이며, 동·서·북문과 옹성이 3개소, 장대지 6개소와 예사들로 된 전략적 요충시설이 갖춰져 있다. 성 안에는 동헌·객사를 비롯하여 22동의 관아건물들로 되어 있었으나 대부분 손실되었다.

이 성은 조선시대의 읍성에서 흔히 보기 어려운 주초와 문짝을 달던 홈이 파인 누문(樓門)을 가지고 있어, 평양에 있는 고구려 시대의 성문, 보은의 삼년산성이나 강화읍성 등에서 볼 수 있는 양식과 비교되어 성곽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또한 여성들의 성벽 뽕기 풍습으로 유명한데, 한 해의 재앙과 질병을 쫓고 복을 비는 의식의 하나로 좋은 민속자료가 된다.

고창읍성 복원계획 조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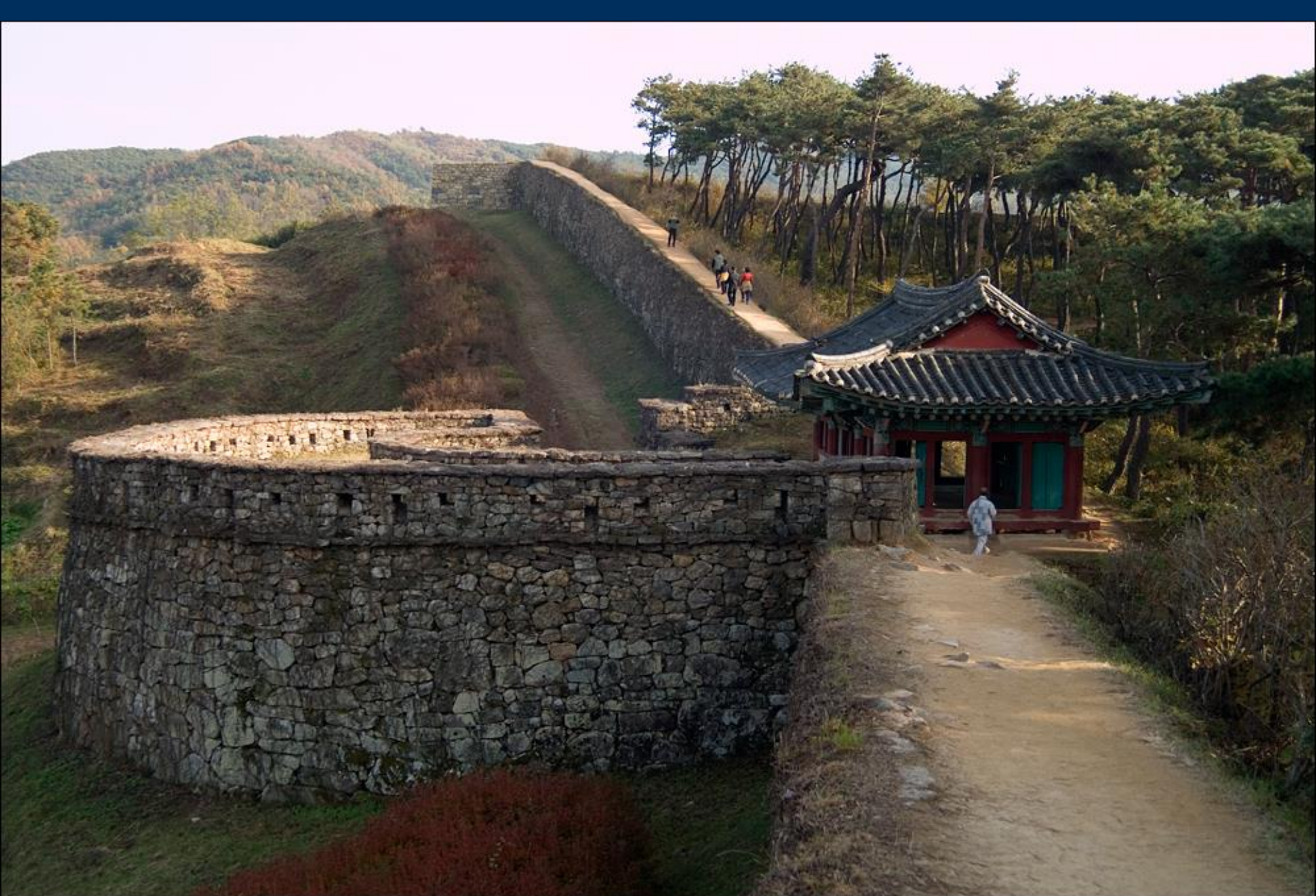


고창읍성도



읍성 정문 공복루

공복루(拱北樓: 두 손 맞잡을.拱)



읍성 동문 등양루



성읍평면도



성읍 돌하르방



성읍 남문



남문에서 본 파노라마



서문 & 피라칸다



정자나무



개 관